



역주하는 김철영.

# 창단 5개월 전남 바이애슬론 '금빛 질주'

### 회장컵·문체부장관컵서 금 4 은 2·동 3 등 총 9개 메달 획득 막내 김철영 2관왕 맹활약

전남도체육회 바이애슬론팀이 올 시즌 첫 대회에서 금빛 질주를 선보였다. 전남체육회 바이애슬론팀은 최근 열린 회장컵과 문체부장관컵 등 2개 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 등 총 9개 메달을 획득했다. 김상욱 감독이 이끄는 전남 바이애슬론팀은 지난해 9월 창단했다. 전남 바이애슬론팀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바이애슬론센터에서 열린 제35회 회장컵 전국바이애슬론대회에서 금메달 2개를 따냈다. 올 시즌 합류한 '막내' 김철영이 남대부 스피리트에서 28:45.2, 집단출발에서 45:34.3의 기록으로 2관왕을 차지했다. 이어 개인경기에서는 53:26.7로 이종민(원주대)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하며 금

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목에 걸었다. 알렉산드로 스타로두베츠(남자 일반부)는 개인 경기와 집단출발에서 은메달(48:39.4)과 동메달(44:43.7)을 따냈다. 전남 바이애슬론팀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제3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컵 전국바이애슬론대회에서도 금메달 2개와 동메달 2개를 따냈다. 알렉산드로 스타로두베츠는 개인 경기(41:49.3)와 집단출발(40:43.1) 모두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김철영은 같은 부문 스피리트(25:51.1)와 개인 경기(42:27.8)에서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철영은 대학부에서 일반부로 무대를 옮겨 성공적으로 데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여자 바이애슬론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는 에카테리나와 프롤리나 안나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오는 3월 21일까지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을 도는 BMW IBU 월드컵에 출전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연합뉴스



전남도체육회 바이애슬론팀.

## 여자농구 삼성생명, 정규리그 1위 꺾는 4위 팀 될까

### 플레이오프 1승 1패로 팽팽 예상 밖 접전 속 오늘 최종전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1위 아산 우리은행과 4위 용인 삼성생명이 맞붙는 플레이오프(3전 2승제)가 예상 밖의 접전 양상으로 진행 중이다. 두 팀의 플레이오프를 놓고 여러 전문가가 정규리그 성적에서 앞서서 우리은행이 2전 전승을 거둘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2차전까지 두 팀은 1승 1패로 팽팽히 맞섰다. 경기 내용 면에서도 4위 삼성생명이 1위 우리은행보다 주도권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1일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2차전에서는 삼성생명이 경기 내내 리드를 놓치지 않은 가운데 4점 차 승리를 따냈다. 3일 다시 아산에서 열리는 최종전에서 부담이 큰 쪽은 아무래도 우리은행이다. 만일 우리은행이 패할 경우 여자프로농구에서 플레이오프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여블리그부터 따져 20년 만에 플레이오프에서 정규리그 4위 팀에 탈미를 잡는 1위 팀이 되기 때문이다. 2001년 겨울리그에서 당시 정규리그 4위 한빛은행이 1위 신세계를 2승 1패로 꺾고 챔피언결정전에 오른 것이 지난 시즌까지 19차례 1위-4위 플레이오프에서 4위가 승리한 유일한 사례다. 당시 정규리그 성적을 보면 신세계가 8승 2패로 1위였고 한빛은행은 5승 5패로 4위였다. 정규리그가 팀당 10경기씩만 열려 30경기씩 치른 이번 시즌과는 비교하기 어렵다. 또 이번 시즌 정규리그 성적은 우리은행이 22승 8패, 삼성생명은 14승 16패로 8경기 차이나 났다. 지금까지 여자프로농구 플레이오프에서 정규리그 8경기 차가 나는 하위 팀이 상위 팀을 잡고 올라간 사례는 두 번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삼성생명이 주인공이었다. 삼성생명은 2012-2013시즌 플레이오프에서 정규리그 3위에 올랐는데 2위 신한은행을 2승 1패로 꺾고 챔피언결정전에 나섰다. 당시 삼성생명은 16승 19패, 신한은행은 24승 11패로 8경기 차가 났다. 또 2018-2019시즌에도 3위를 차지한 삼성생명은 2위 우리은행을 역시 2승 1패로 따돌렸다. 당시 삼성생명은 19승 16패, 우리은행은 27승 8패였다. 이번에 만일 삼성생명이 이기면 2012-2013시



지난 1일 경기도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여자프로농구 플레이오프 2차전 삼성생명 블루밍스와 우리은행 위비의 경기. 삼성생명 김한별이 슛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즌 이후 8년 만에 정규리그 승을 5할이 안 되는 팀이 챔피언결정전에 나가는 사례가 된다. 그러나 여기 맞서는 우리은행도 호락호락 당하지는 않을 테다. 1일 2차전에서는 박혜진, 김소

## 대한체육회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 순천 유도·고흥 축구·함평 야구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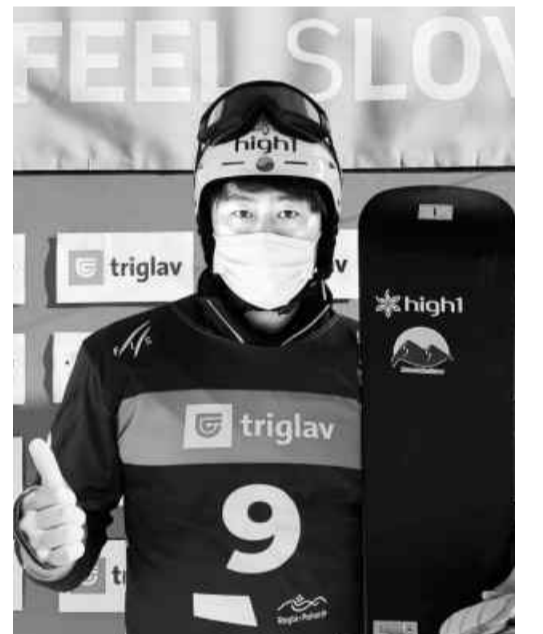
전남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주관 학교 연계형(한중목) 스포츠클럽 3차 공모에서 순천시와 고흥·함평군 등 3곳이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은 지역 공공시설이나 학교 체육시설을 기반으로 회원의 청소년 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 올려 학교 운동부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해 기존 공공스포츠클럽과 차이를 뒀다. 선정된 3개 클럽의 종목은 순천시 유도·고흥군 축구·함평군 야구로, 앞으로 5년간 총 25억원(국비 20억원·도비 5억원)의 지원을 받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도내에서는 지난해 1차 공모에서 장흥군(축구)이, 2차 공모에서는 여수(테니스)·순천(씨름)·강진(축구 테니스)·장성(야구) 등 5곳이 선정됐다. 전남체육회는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을 운영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도 행정 지원을 통해 연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김재무 전남체육회장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서로 공존하는 선순환을 도모하는 스포츠클럽에 도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김상겸, 스노보드 알파인 세계선수권 4위

### 한국 역대 최고 성적 타이

김상겸(32·하이원리조트)이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알파인 세계선수권대회에서 4위에 올라 한국 스키 사상 세계선수권 역대 최고 성적 타이 기록을 달성했다. 김상겸은 1일(현지시간) 슬로베니아 로글라에서 열린 2021 스노보드 알파인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평행대회전 경기에서 출전 선수 58명 가운데 4위를 차지했다. 한국 스키가 세계선수권 4위에 오른 것은 2017년 3월 서지원(27)이 프리스타일 세계선수권 여자 듀얼 모달에서 4위를 차지한 이후 이번 김상겸이 4년 만이다. 예선 9위로 16강이 겨루는 결선에 진출한 김상겸은 16강에서 마르코 펠리체티(이탈리아)를 0.61초 차로 제치고 8강에 올랐다. 준준결승에서는 미할 노바치크(폴란드)를 0.02초 차로 따돌리고 4강 진출에 성공했다. 그러나 김상겸은 4강에서 톨랑 피슈날러(이탈리아)에게 패했고, 동메달을 다투는 3·4위전에서도 안드레이 소볼레프(러시아)보다 늦게 결승선을 통과했다. 김상겸은 2017년 3월 터키 카이세리에서 열린 FIS 스노보드 월드컵 4위 이후 4년 만에 다시 세계선수권 4강에 이름을 올리며 2022년 베이징을 올림픽 메달 전망을 밝혔다. 김상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경력이 많았지만 봉인도 감독님을 비



2일 슬로베니아에서 열린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알파인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평행대회전 경기에서 4위를 차지한 김상겸. /연합뉴스  
롯데 코칭스태프의 도움과 대한스키협회, 하이원리조트의 지원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며 "올림픽 메달 가능성이 보인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내일 평행회전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출전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이상호(26·하이원 리조트)는 14위, 여자부 정해림(26·경기도스키협회)은 23위를 각각 기록했다. /연합뉴스

###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미나리
2관	통과 제리
3관	소울
4관	미나리
5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6관	미션 파서블
9관	미션 파서블
7관	씨네커피 카오스 워킹
8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소울, 워 워드 그랜드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국악 상설 공연**  
일시 : 2021. 02. 24.(수) ~ 03. 31.(수)  
매주 화-토 17:00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GAC기획공연 포시즌1  
임동민&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일시 : 2021. 03. 14.(일) 17: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